

사순 제1주일

기도서 249면(다해)

제1독서: 신명기 26, 4-10

제2독서: 로마 10, 8-13

복음: 루가 4, 1-13

숲정이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루가 4, 12).

■ 이임사 ■

안녕히 계십시오!

-전주교구를 떠나면서-

친애하는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뜻밖의 전보발령에 의하여 제가 7년간 몸담아온 전주교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발령이기에 우선 인간적으로는 놀라움과 섭섭함이 저와 교구민 모두를 당혹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교회 장상님들, 특히 발령권자인 교황성하의 사려깊은 배려이며 하느님의 사랑의 안배임을 믿기에 우리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제 떠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7년을 회고할 때에 이미 고인이 되신 김재덕 주교님과 5분의 신부님, 그리고 헌직에 계시는 모든 신부님들을 비롯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의 사랑과 협력에 대하여 특별히 깊은 감사의 정을 느낍니다. 짧다면 짧지만 일이 많았던 지난 7년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무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협력과 도움이 여러분의 깊은 신앙심과 교회정신에서 솟아나온 열매였다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재임한 지난 7년은 한국교회와 우리 전주교구에 역사적이고 보람된 일이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 200주년을 성대하게 지냈고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뜻있게 기념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기념을 보람되게 지내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순교선조들의 현양사업에 힘썼고, 본당증설과 전교에 전력을 다했으며 한국내 교구로써는 처음으로 교구 선교사를 남미 페루에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 시키기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마를 맞대고 연구하고 걱정하며 지내온 지난 날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보람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전주교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심에 감사할 드립니다.

그 반면 전주 교구를 떠나는 저의 마음 한 구석에는 교구민 모두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전주교구가

저의 능력과 성의부족으로 은혜로운 지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그동안 신부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자, 신자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잘못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의 관대한 용서와 사랑을 청하는 바입니다. 저 자신도 저 나름대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느낀 점 모두 잊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작별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제가 전주교구를 떠나지만 실상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이별이란 말이 걸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요, 성체 안에 하나요,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한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와 희생봉헌으로 서로 도우며 뜻을 통할 수 있고, 같은 하느님의 은총의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구간의 벽이 아직 높은 것을 실감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전주와 마산 교구가 그 벽을 차차 허물어가는 선구 교구가 되기를 저는 이 기회에 염원해 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전주교구는 자랑스러운 순교선조들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복된 교구입니다. 저는 지난 7년동안 이 자랑스러운 교구에 몸담아 온 것을 보람으로 되새기면서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앞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새 일터인 마산교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상에 계시는 교구 주보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전구로 여러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드리며 마지막 축복을 보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9년 2월

박정일 주교

숲정이 산책



큰 발자욱!

『주교님을 떠나보내면서』

해마다 이때쯤이면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질 운명에 있다는 회지정리(會者定離)의 의미를 아프게 경험한다. 많은 신부님들이 이동되었고 우리는 또 하나의 별리를 앞에 두고 있다.

어차피 신앙은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등식을 전제하면서 일찌기 주님께서 모범을 주신데도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주교님은 교구에 오셔서 6년 반동안 헌신하셨다. 그동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척박한 이 고장에서 선조들의 일관 신앙의 유산을 유일한 담보로 줄기차게 성장을 거듭

했다. 당시 63,000이었던 신자 수는 105,000을 헤아리게 되었고 39개 본당을 54개 본당으로 15개 본당이 증설되었다. 우리의 형편을 감안 한다면 오로지 일체된 교구민들의 노고의 결정(結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27명의 사제가 증가한 것은 앞으로 교구 발전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준다.

차제에 떠나시는 주교님께서 새 임지인 마산교구에서 건승(健勝)하심을 빌고 영호남의 신앙안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성서와 함께

36. 성서의 언어(A) : 구약성서

일반적으로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씌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히브리어 이외에도 아라미어와 다른 몇몇 이상한 외국어 단어들도 구약성서의 언어로 등장한다. 원래 히브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붙여진 이름이지 그들의 언어에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다. 기원전 2세기 랍비들이 처음으로 성서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부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인들은 그 언어를 "유대인들의 언어"(열왕 후 18, 26, 28; 느헤 13, 24) 또는 "가니안의 언어"(이사 19, 18)라고 불렀다.

히브리어가 성서의 공식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유배 이후 유대인들은 일상 용어로서 히브리어 대신 아라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라미어어 역시 히브리말처럼 셈족 언어에 속한다. 때때로 아라미어어를 칼데아어라고 잘못 불리기도 한다. 성서에서 아라미어로 씌어진 부분은 뒤늦게 기록된 몇몇 대목들이다(다니 2, 4-7, 28; 예즈 4, 8-6, 18; 7, 12-26; 예레 10, 11).

아라미어를 포함하여 히브리어 성서 본문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허락치 않았지만 글씨체의 변화는 인정했다. 그래서 원래의 히브리어로 된 성서를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아라미어어를 일상의 용어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은 사각형 모양의 아라미어 글씨체를 채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언어 그 자체는 히브리말이지만 그 언어의 표기는 아라미어어 글씨체로 했다는 것이다.

창세기 1, 1의 히브리 본문을 보자.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간다. 그리고 문자의 기록엔 원래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아직 히브리말을 일상 용어로 사용하고 있던 시절엔 이 사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히브리어의 방언적인 아라미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리 큰 문제가 못되었다. 그러나 회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는 성서의 히브리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기원 후 6세기 마조레트라 불리는 유대인 학자들이 완전한 모음 체계를 창조하여 히브리 성서 본문에 삽입하였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서의 개조를 허용치 않던 그들은인지라 본문을 그대로 둔 채 아래 워 또는 악센트를 표시하기 위하여 글자 앞에 점과 작은 부호를 적어 넣음으로써 모음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을 이 체계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히브리어나 아라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단순성에 있다. 각종 종속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리고"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데는 안성맞춤이지만 추상적인 논리전개를 위해선 부적격이다. 아라미어어를 쓰셨던 예수의 비유들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두뇌 및 정신력의 경이적 활용법 / 정신과학세미나 안내

- 2월 12일(일) 오후 3시 · 2월 15일(수) 오후 7시
- 전주가톨릭센터 대강당 (참가비: 1,000원)
-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원 ● 연사: 金重培 博士(말시아노)
- 효과: 건강증진, 문제해결, 고도의 두뇌 및 정신활용, 적극적 사고배양, 인간관계의 성공

교 사 초빙

1. 과 목: 불어, 한문(유경험자 환영)
2. 구비서류: 이력서1부, 호적등본1부, 자격증(사본)1부, 대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1부
3. 제출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사무과(84-3244)
4. 제출기간: 1989년 2월 15일 오후 5시
5. 면 접: 1989년 2월 16일 오전

학교법인 해성학원

잠깐!


주교님! 안녕히 가십시오.

1988년 한해가 저무는 어느날 저녁, 느닷없이 들려온 소식은 우리 박주교님이 마산교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고 갑자기 무었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교구사제들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놀라고 착잡한 마음으로 교구청으로 모여들었다. 무엇이라고 할말들이 없는 표정들…….

1월2일 신년 하례식 때에 주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교구를 떠나십니까’ 하고 물어오는데 그런 것은 묻는 것이아니라고…….” 물음의 대답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순명할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주교님은 7년 전에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 전주교구에 오셨고 또 그 뜻에 따라 이 교구를 떠나신다. 주교님의 문장에 새겨진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온유와 충성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구민 모두에게는 평화를 안겨주셨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온유와 충성으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모범으로 남겨주셨다.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마태5, 40)는…….

주교님의 온유한 품성은 이 어지럽고 강한 사람이 득세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헤쳐가는 데에 어찌면 커다란 아픔이고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적 가치관이 어떠한지 하는지는 우리에게 벌써부터 드러나 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를 맞추기라도 하듯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시는 박정일 주교님을 위해 기도하자. 마산교구에서도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들이 일치한 가운데 드높은 사목생활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주교님께서 과제로 남겨주신 성체성년, 1989년 한해의 사목지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신 사랑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모두 깊이 인사를 드리자. “주교님, 안녕히 가십시오!”

요심이 (810) 



교구소식

박정일 주교님 환송미사 · 환송식

- 일 시 :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중앙천주교회
- 환송연 : 오전 12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강당

회개와 보속을 위한 새벽미사 2월8일(재의 수요일부터) - 일요일 제외
장소 : 숲정이(해성학교) 시간 : 오전 6시

1. 공소회장 연수회 : 22일(수)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2. 혼인강좌 : 26일(오전 9:30) 가톨릭센터
3. 사제를 위한 다락방모임 : 2.18(토) 14시~16시 가톨릭센터 성당
4.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성소피정
1989. 2. 19 9시 20분부터 곳 -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서울본원 전화 989-5826
5. M.B.W 대학코스 : 2.23(목)~25(토) 수료 회비 3,000원
접수순 30명 교육국(85-0041) 오전 9시 센터에서 출발
6. 성빈센트드블 자비의 수녀회 성소자 모임 : 89. 2. 19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 수녀원 본원 연락처 - 수원시 장안구 지동 93-3 전화(6-4961)

정기총회 소집공고

신협법 제21조 및 제32조에 의거 제16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소집공고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개최일시 : 1989. 2. 18(토) 오후 1시
2. 개최장소 : 천주교 천동교회
3. 부의안건 :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외 10건

●기념품 증정
※ 총회참석시 조합원통장, 주민등록증, 인장지함.

1989. 2. 1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최무대행 김 후만

사무장 채용

함열천주교회

※ 연락처

전화 : 사제관

6-0165

6-1673

인? 나 비 커 텐

선경커피, 스원카페트, 브라인드 홀딩도어, 홈팻션(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 걸 (알베르토)

김 강 (엘리사벳)

전주서 중앙동 2가 53-5(라자지구역)

☎ 82-2226, 86-5611

원평유치원 교사모집

모집인원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연락처 : 원평천주교회

☎ (0658) 43-0880

정기총회 소집공고

신협법 제21조 및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6차 조합원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개최일시 : 1989년 2월 19일(일요일) 오후 1시
2. 개최장소 : 천주교 전주 중앙성당(전주시 서도순동 639)
3. 참석대상 : 전체조합원(14세미만 조합원 제외)
4. 부의안건 :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외 5건

●기념품 증정 ※ 총회참석시 조합원통장, 주민등록증, 인장지함

1989. 2. 3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정 생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입니다.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최 용 준**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 의 옥**

- ※ 사순절 특별강연: 오늘 공식미사, 저녁미사 이병호 신부님 강의
- ※ 주교님 환송미사: 13일(월) 10시30분
- 1. 사순절 불우형제 돕기 운동: 성미·성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2. 성도유치원 제14회 졸업식: 16일(목) 오전11시
- 3. 중앙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다음주일(19일) 공식미사후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병자방문: 14일(화) 오후3시
- 5. 모임: 꼬미씨음-오늘 오후2시 울뜨레아-15일(수) 오후7시30분 상지회-16일(목) 오후 성모회-17일(금) 어머니미사후 꾸리아-다음주일(19일) 오후2시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열**

- ※ 벽돌 헌금및 폐품 수집: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 애비자 통신 교리 안내: 사무실에 접수및 문의 바랍니다.
- ※ 매주 금요일: 금육제(회개와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내세요.
- ※ 사순절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9시30분부터
- 1. 모임: 성조회, 울뜨레아-공식미사후 차주모임=꾸리아-공식미사후
- 금주분당청소 안내: 파티라의 모후 차주-애덕의 모후
- 금주미사안내: 애덕의 모후 차주-사랑하움 모후
- 금주미사안내: 해설-김남곤 독서①박경수 ②조옥순
- 차주미사안내: 해설-김남곤 독서①김영복 ②이한은

*금암

사제관 3-1613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원 76-0961

- ※ 수고하셨습니다: 박 그레고리오 수녀님
- 1. 오늘은 친교주간: 반장님회의-오늘 공식미사후
- 2. 차주는 선교주간: 꾸리아회의-2월19일 오후2시
- 3. 금오회: 기주 공식미사후
- 4. 교육·홍보부장, 차장 연수: 오늘 오전10시 센터
- 5. 판공성사: 일시-2월14일부터 실시 성사시간-미사30분전 미사후 (성사표는 미리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 6. 금주전례: 해설-김종구 봉헌-정분영 부부
 복사-장유진 정하용 기도-57만, 58만, 59만
- 7. 차주전례: 해설-신동철 봉헌-장춘식 부부
 복사-이장성 엄영섭 기도-60만, 61만, 62만
- 미사안내: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정의의 거울Pr.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 병 울**
 수녀원 4-1142

- 1. 오늘의 모임: 바울로, 하삼바울로, 안나회 공식미사후
- 2. 청소년 부장, 차장 연수회: 19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 3. 까리따스회: 14일 오후2시
- 4. 구역·반 형제모임: 14, 15일 모두 참석합니다.
- 5. 지속적인 성체조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6. 다음주일은 교무금 봉헌주일: 89년도 교무금 빠짐없이 신입 바랍니다.
- 7. 금주 분당청소: 송천9구역 18일 오전11시
- 8. 금주전례: 해설-사복자 독서-이준호부부
 기도-이영희 이완자 주병렬
- 9. 차주전례: 해설-이건장 독서-박중환부부
 기도-이기업 박복자 백영신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심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 렬**
 수·유 72-1222

- 1. 본당의 신축공사에 모두의 정성을 드립시다.
- 2. 성화회: 공식미사후(사복회의실)
- 3. 베드로회: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 4. 까리따스 자모회: 14일(화) 오후2시 (2층 회의실)
- 5. 성기정회: 14일(화) 저녁미사후
- 6. 에우살렘 부녀회: 16일(목) 오전11시
- 7. 진복 유치원 졸업식: 17일(금) 오후2시
- 8. 금주전례: 해설-민우석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덕진19만
- 차주전례: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사복회
 기도-덕진20만
- 9. 금주분당 청소: 상지의 옥좌Pr-18일 오후1시30분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 규 철**
 수녀원 3-9567

- 1. 오늘: 사순 제1주일, 교육부장, 차장 홍보부장, 차장 연수(센터) 푸른숲, 울뜨레아, 조동부 6학년 졸업식(오후3시)
- 2. 구역모임: 14, 15, 16일 *숲머리 참조
- 3. 자모회: 14일 오전10시
- 4. 중·고 교사 성시간: 18일
- 5. 사순절 기간동안 매 금요일은 금육일입니다.
- 6. 다음주일: 청소년부장, 차장 연수(센터) 중·고 등반대회 꾸리아, 12사도회
- 7. 금주분당 청소: 화-하늘의 문 토-증거자의 모후
- 8. 미사안내: 상아보탑
- 9. 미사해설: 이중상
- 10. 금주전례: 독서·기도-정주복 허옥순
 봉헌·기도-윤규삼 김유자
- 차주전례: 독서·기도-박중용 고영숙
 봉헌·기도-김경주 김숙현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 1. 유아세례: 오늘 공식미사후
- 2. 애비자 입교식(8월 영세반): 16일 저녁7시30분
- 3.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안나회, 클라라회, 13일-빈첸시오회 18일-동성회 차주공식미사후-구역장회의
- 4. 구역미사(14일): 동산6구역
- 5. 나눔잔치(15일): 화진
- 6. 청소년 부장 연수: 다음주일(19일) 10시 센터
- 7. 혼인강좌: 26일 오전9:30 센터(결혼을 앞둔 미혼남·여는 필히 교육을 받을 것)
- 8. 금주청소: 바다의 별Pr. 차주-매괴의 모후Pr
-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유문용 ②분정순
- 차주전례: 해설-김백천 독서①엄배균 ②전점순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 1. 사목회 월례회의: 12일 오늘 공식미사후(강당) 차장포함
- 2. 성수 사용: 성당에 들어 올때만 사용합니다.
- 3. 십자가의 길: 매 금요일 저녁미사후
- 4. 미사해설와 독서자는 정장을 하세요.
- 5. 미사후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 6. 재대회 월례회의: 16일 어머니 미사후
- 7. 봉헌금(교무금) 주일금 신축헌금은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 8. 혼인하실 분은 혼인 강좌(교구)로 필한 후 면담바랍니다.
- 9. 사순절 동안 이웃을 방문하고 1세대 1인 인도합니다.
- 10. 안나회 월례회의: 19일 공식미사후
- 11. 금주 미사안내: 신비로운 장마, 다음주 안내-증거자의 모후
- 12.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가정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13. 가정을 위한 생미사와 선영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십시오.
- 14. 성가대 성가연습: 2월 15일 부터 매주 수요일 3시